

국내외 시장경제와 21세기를 향한 양계산업

□ 정리/이유혁 기자

본고는 지난 6월 12~13일에 가평소재 청평가든 수련원에서 개최한 제11회 임직원 수련 및 단합 대회에서 (재)국제농업개발원 원장인 이병화 박사가 강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주-

최 근 청정 채소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바 있었는데 이래서 국제경쟁력이 향상되었는지, 양계업계 뿐만이 아니라 축산업계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큰 현안 문제들이 얼마나 있고 그것들의 해결책을 어떻게 찾아야 할 지를 생각해 보자.

컴퓨터를 이용한 광고

광고라 해서 거창하게 신문지상이나 TV, 라

디오 같은 언론 매체를 통하여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이 대표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 정보사회에 걸맞게 컴퓨터를 활용하지는 것이다.

한 예로 군납을 하던 한 양배추 생산농가가 그 해에 다른 농가와 더불어 과잉 생산이 되어 처리에 고충을 겪자 이것을 일반시장에 팔려고 하였으나 워낙 생산이 과잉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몰라 컴퓨터 통신(인터넷)을 이용해서 국내 사용처를 알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홍콩과 일본에서 구매하겠다는 의뢰가 왔을 때 물량이 수출할 정도가 되지 못하여 더욱 난감한 일을 당한 사례도 있다.

간단한 예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컴퓨터 통신 가입자가 전세계적으로 있어 모든 정보를 그때 그때 교환할 수 있고, 사람을 직접 만나



△ 이병화 원장 (국제농업개발원)

지 않아도 컴퓨터상으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세상이 되고 있다.

자동화와 인건비

우리가 현재 시설자동화를 하면서 인력난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든다는 결점도 있다.

자동화와 인건비의 문제가 처음으로 나타난 곳은 미국의 L.A인데 정책이 바뀌면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가까운 멕시코나 그 외 중남미와 같이 외국의 값싼 노동력을 투입하자 시설자동화를 한 곳은 사실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절감, 생산성 향상을 꾀하여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였는데 인건비가 싸지자 시설자동화에 투자한 농가들은 고정생산비가 있지만 재래식으로 경영하던 농가들은 저절로 생산비가

낮아져서 오히려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진 예가 있어, 우리나라도 동남아시아, 중국, 대북한 시장에서 변화되면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는 모르지만 양계업에 지나친 시설자동화는 오히려 생산비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 적절한 선택기준과 경영상의 묘를 살려야 한다.

국내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생기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현재 모내기

로 들어보면 연간 사용 횟수는 18일정도 사용하고, 수명은 5년 정도로 총 90일정도 쓰는데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는 반면 인건비가 싼 외국인을 사용하면 우리나라 보통의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반으로 이양기를 쓰면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들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시설 자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 시설을 대형화하면서 자동화를 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주었기에 이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생산

우리나라는 사료 부존 자원(옥수수, 밀, 호밀 기타 곡물)이 매우 부족하다 보니 거의 대

부분의 사료 자원을 수입해 오는 실정이다.

이상 기후로 인한 국제 곡물 가격 상승과 중국의 흉년으로 중국에서 반입 되는 곡물의 수입 중단으로 인하여 사료회사들이 사료곡물의 확보가 매우 힘든 형편에 처하였다.

외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땅을 빌려서 사료 작물을 재배해서 그것을 수입해 가는 형식을 취해 나가고 있다. 선진국들은 다른 국가들처럼 국외에 땅을 만들어 그 산물을 수입해 오는 방향으로 나가고, 또한 그곳에 사료 공장을 만들고, 양계 단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개방화에 대처하는 것을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볼 때 입지 조건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 연해주와 만주를 꼽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배로 부산항까지 30여 시간으로 신선한 사료 원료를 공급 받을 수 있어 멀리 미국에서 오는 시간과 운송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잇점이 있고, 싼 노동력이 많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 문제가 국내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땅이 넓은 개도국에 투자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료자급의 의지를 가지고 해당 국가정부와 협상이 있어야하고, 기업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야만 문제가 해결이 가능 해진다.

쓰레기 공해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음식물이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이것을 개사료나 기타 잡식성 동물의 사료로 재활용 할 수 있다면 여기에 들어 갈 곡물을 다른 용도의 사료로 전환시켜 사용하게 되면 사료 곡물을 절약할 수 있고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의식 전환

세계적으로 농업인구는 많이 줄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농업 인구가 급격하든 완만하든 50%에서 10%으로 감소하는데 주요 국가가 걸린 기간을 보면 영국이 170년, 독일이 150년, 이탈리아가 130년, 미국이 120년, 일본이 70년이데 비하여 한국은 반세기도 안되는 30년이 걸렸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농업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서서히 산업화가 되어 갔지만 우리는 농업의 관리를 잘못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농축산업에 대한 인식에 있어 첫째로 일이 어렵고 힘이 든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생산성은 매우 낮아 돈벌이가 되지 않는 산업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매우 짧은 기간에 우리는 산업화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나라는 농촌에 대한 복지는 형편없고 도시의 생활 수준은 농촌에 비하여 훨씬 높은 편이라서 농촌에 남아 있으려는 사람이 많이 줄어 농촌의 노동력이 부족하고 인구도 급감하였다는 생각이 된다.

매우 짧은 기간에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10%정도로 줄어들어 있다는 것은 농촌의 복지 시설의 낙후와 단기간의 산업화, 그리고 자동화로 인한 것으로 받아들 수도 있을 것이다.

앞에서 말한 산업구조가 이렇게 변한 것은 농업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외국과 같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는 잘되면 자기탓 안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나쁜 사고 방식을



농업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외국과 같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는 잘되면 자기탓 안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나쁜 사고 방식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버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경쟁 상대로

WTO체제 안에서 내년 7월이면 모든 물품과 소고기를 제외한 농축산물이 개방되는 것은 우리가 무한 경쟁 시대, 무역 전쟁의 시대에 뛰어든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필리핀이나 그 외의 나라들은 자국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실속을 차리고 있다.

여기에서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자국의 기준으로 세밀한 안전성검사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끄는 식의 작전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라도 세밀한 검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시행을 못하고 있다.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은 남아도는 자국의 농축산물을 무역 전쟁의 무기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당한 모든 수입산물에 대한 검사도 어렵고 국민 정서상 외국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쉽게 그들의 전략에 넘어가고 있음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것에 최선을 다하여 선전을 해야 하고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동화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자동화를 하면서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외국의 값이 싼 노동력이 들어와도 이를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사료 문제는 우리 주변의 국가들을 잘 이용만 하면 질이 좋고 값이 싼 사료 원료 곡물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이곳의 노동력을 이용한다면 생산비는 매우 작게 나올 것이다.

말로만 농촌을 살리자, 신도불이를 외치면서 수입 닭고기를 먹고, 외국 승용차를 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버리고 진짜 우리의 것을 살려야 한다.

우리의 양계산업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삼계탕, 닭갈비 등의 형태로 우리국민들에게 즐겨 먹을 수 있는 식품을 개발하고 외국에서 하지 못하는 난가공을 특별하게 하는 등 상품개발을 한다면 우리는 앞에서 말을 한 것을 잘 조절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면 우리 양계산업은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계산업은 현재 보다는 보다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계**